

약취 즉시 제거…환경마크 인증도 획득

우린네이처의 친환경탈취제 ‘에어리페어’가 축산농가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린네이치는 친환경 탈취제인 ‘에어리페어(Air Repair)’가 지난 8월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거쳐 환경마크를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친환경축산 선도기업 우린네이처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친환경 축산 관련 제품을 판매해 왔다. 특히 이번 친환경탈취제 ‘에어리페어’는 공기청정의 나라 뉴질랜드 수입품으로, 유기산, 식물추출물, 에센셜 오일 등의 천연물질로 만들어졌다. 이미 2016년에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번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다시 한번 친환경 제품 유기산, 식물추출물, 에센셜오일 등 천연물질 함유 임을 입증받았다.

유기산, 식물추출물, 에센셜오일 등 천연물질 함유 축사 내·외부, 발효장의 약취 감소효과 탁월

환경마크제도는 환경

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에어리페어는 약취가 문제가 되는 어떤 곳이든 분무하거나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면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된다.

특히 액비 살포시, 축사 내외부, 발효장의 약취 감소에 탁월한데, 세종시의 한 액비유통업체는 에어리페어 사용으로 액비 살포시 민원이 해결되어 직접 농가에 제품을 사용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민원 해결을 위해 제품 구매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분야에도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 제조사 제품인 ‘FS골드’와 함께 섞어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된다. 에어리페어는 암모니아, 아민과 같은 알칼리성 약취에, FS골드는 황화수소와 메르캅탄 같은 산성 약취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므로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광범위한 약취를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